

△구일산업 무안농축장농장 전경

간척지를 옥토로 바꾼

구일산업 무안농축장

바닷물을 막아 간척지를 만들고, 이 땅을 기름진 옥토로 바꾸고 있는 구일산업 무안농축장!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성내리 422 (전화 : 운남 211, 212)에 위치한 구일산업 무안농축장은 1973년 바닷물을 막아서 만든 간척지에 설립된 농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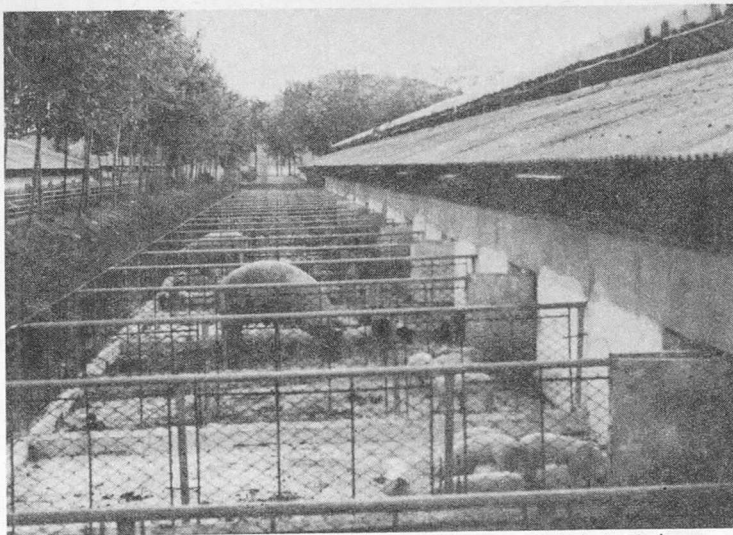
다.

원래 바닷물을 막아서 만든 땅이므로 농사를 짓기에는 부적합한 땅이었다. 나무를 심어도 거름이 부족하여 잘 자라지 못하였다. 이에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1976년 양돈장을 건설하게 되었다.

그 때만 해도 이 지역의 땅은

풀도 잘 자라지 못하는 박토라 아무런 쓸모없는 땅이었다. 메마른 땅을 기름지게 하는데는 무엇보다도 돼지 거름이 제일이라는 것을 알고 토질을 변경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였다.

지금은 100여만 평의 농장뿐만 아니라 인근의 황폐된 산지



△모든 물론 자돈들도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에도 이 거름을 이용하게 하여 영세 양축농가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제는 구일산업 무안농축장 반경 8km까지는 구일산업에서 생산한 돼지 거름의 혜택을 받지 못한 땅이 없을 정도로 인근의 땅 힘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구일산업은 여느 기업농에서 발생되기 쉬운 지역 주민과의 불화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냉동정액 이용으로 혈통 갱신

구일산업에서는 지난 83년도부터 냉동정액을 이용하여 종돈 개량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철두철미한 계획하에 시행하고 있다.

물론 냉동정액을 이용하여 인공수정 시키는 것이 자연종부

보다 산자수와 수태율에서는 훨씬 떨어지지만 장점이 단점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70년대 잠깐 반짝했다가 시들은 돼지의 인공수정 방법을 구일산업에서는 지금껏 개발해서 이용하고 있다.

구일산업에서 제시하는 냉동정액을 이용한 인공수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값이 싸고 경제적이다. 종돈 수입에 따른 외화를 절약할 수 있으며 생돈의 사양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둘째, 완벽한 방역 체계를 유지한다. 종돈 수입시 염려되는 각종 질병으로부터 농장을 보호할 수 있으며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어서 농장의 오염을 방지한다.

셋째, 환경에 적응력이 강하다. 수입한 생돈은 기후와 환경에 적응하기가 어렵지만 동결정액을 이용한 자돈은 태어날 때부터 주위의 환경에 쉽게 적

응할 수 있다.

네째, 우수한 종돈의 정액만 사용한다. 종돈을 도입해 오다 보면 가끔 능력이 좋지 못한 종돈도 들어오게 되는데 냉동정액으로 들어오는 돼지는 후대검정이 완료된 돼지이므로 우수성이 입증된 종돈의 정액이다.

다섯째,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각 특성에 따라 여러 종류의 정액이 구비되어 있으므로 자기가 원하는 특성의 돼지 정액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여섯째, 운반이 용이하다. 종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도중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번거로운 수송대책을 세워야 하겠지만, 냉동정액을 운반하거나 저장하는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그러나 냉동정액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태율과 산자수가 자연종부 때보다 훨씬 떨어지며 주입 방법도 기술을 익혀야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냉동정액을 사용하여 인공수정을 실시하는데는 수정 적기를 탐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연교배 때보다 정자수나 활력이 떨어지므로 정확한 수정 적기의 판단이야말로 인공수정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볼 수 있다.

또 각 개체별로 주입시간이

일정치 않으므로 새벽이나 한밤중에라도 작업을 해야 한다.

구일산업의 오세권 생산부장은 “동결정액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주지만 그것보다는 계획적인 육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이용한다”고 말하며 “어떤 형질의 정액이라도 원하는 대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품종 개량을 위해서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냉동정액의 사용이 전에는 질병이나 전염병의 예방을 위해서 주로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주목적이 돼지의 유전능력을 계획적으로 계량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모하고 있다. 구일산업에서는 그동안 모든 125두를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 약 54%의 수태율을 보였으며 평균 산자

〈표〉 냉동정액 사용돼지의 성적

구분	구입횟수		1차 (83년 1월~)		2차 (83년 10월~)		3차 (85. 3~)		합계 (83. 1~86. 2)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총 수정두수	40두		49두		36두		125두			
수태두수	20두	50%	27두	55%	21두	58.3%	68두	54.4%	68두	54.4%
사고두수	21두	52.5%	24두	49%	16두	44.4%	61두	48.8%	61두	48.8%
사고내용	재발	20두 50%	22두 45%	15두 41.6%	57두 45.6%					
	유산	1두 2.5%	1두 2%	1두 2.7%	3두 2.4%					
	판매		1두 2%		1두 0.8%					
분만내용	분만복수	19두 47.5%	25두 51%	20두 55.5%	64두 51.2%					
	총산자수	119두 평균 6.26두	208두 평균 8.32두	137두 평균 6.85두	464두 평균 7.25두					
	사고	6두	12두	5두	23두					
	포유개시	평균 113두 5.9두	196두 7.8두	132두 6.6두	441두 6.8두					

냉동정액을 이용한 인공수정은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으로부터 농장을 보호한다.

수는 7.25두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냉동정액을 이용한 성적은 다음 표와 같다.

호남지방 돼지개량의 전 초지

구일산업은 지금까지 돼지를 사육해 오면서 종돈을 판매하기 위해 선전을 해본 일이 한번도 없다. 계속 자가 농장검정을 통해 축군의 능력 배양에만 힘써오고 있다. 그러나 인근의 영세한 양축농가에서 종돈 구입을 희망해 오면 싼 값에 분양하고 있다.

사실 이곳은 돼지의 선진지라고 불리는 경기도 지방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어서 돼지 개량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구일산업에서 분양한 많은 종돈들이 이곳 돼지 개량의 기초돈으로 활용되어 타 지방에 비해 능력이 별로 뒤지지 않고 있다.

또한 구일산업에서는 종돈 분양과 함께 인근 농가에 새로운 양돈 기술을 보급하고 있으며 질병 지도와 더불어 양돈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지역 양축가들은 출하할 때는 항상 가격 동향을 문의해 온다고 한다.

연 2회 자체 평가로 돈장 성적 비교

구일산업의 무안농축장에서 선의의 경쟁의식을 불어 넣어 생산성의 향상을 기하고자 연 2회에 걸쳐 사양관리 성적을 체크하여 우수한 관리자에게는 시상과 더불어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

체크 항목은 일당 증체량, 육성율, 사료요구율, 의약품비등을 종합적으로 점수화 하여 성

적을 산출하는데, 일정한 기준을 세워 놓고 그 기준을 상회하는 관리자는 숫자에 관계없이 표창한다. 처음에는 상대평가를 하여 시상하였으나, 많은 관리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지금은 절대평가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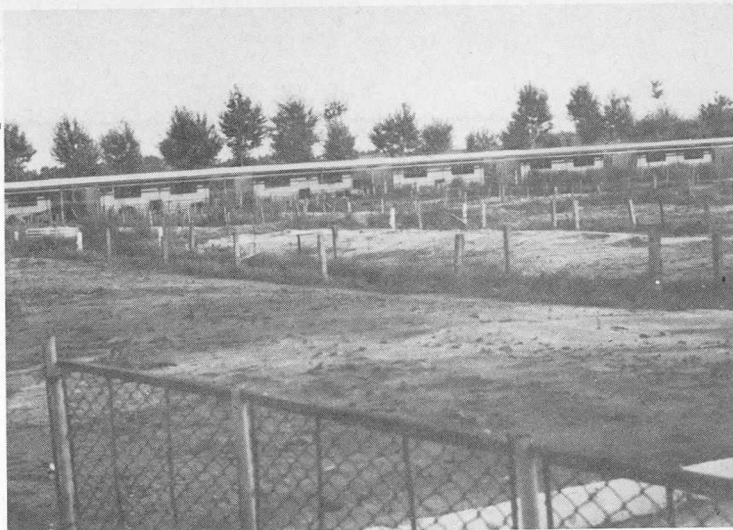
또한 성적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사양관리 측면만 점수화 하면 인간관계가 소원해질 우려가 있어 인간관계도 20% 정도 점수에 가산한다고 한다.

이 제도를 시행한 후 관리 성적은 눈에 떨 정도로 향상되고 있었다.

이 제도를 제안한 전승휴 대리는 “이 제도 시행 후 사료 허실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관리자마다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돈장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누가 보든 말든 열심히 관리합니다. 물론 경쟁을 시키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며 사료 허실 방지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만도 대단하다고 밝혔다.

분만사는 케이지 사용

구일산업의 분만사는 전부 케이지화 되어 있다. 케이지화함으로써 그동안 고질적이던 자돈의 하리 현상은 찾아 볼 수 없다고 한다.



△넓은 방목장은 종돈관리의 필수요인이다.

구일산업은 2년전부터 케이지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사용 후에는 자돈의 하리 뿐만 아니라 바닥의 습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각종 질병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평당 모든 수용능력을 높일 수 있었으며 돈사 바닥에 깔던 깔짚도 필요없게 됐다.

많은 가격을 들여서 분만 케이지를 설치했지만 생산성을 따지면 시설 투자비는 2년 이내에 상쇄시킬 수 있다고 한다.

돼지를 기르는데 있어서 자돈기를 잘 관리하면 90% 정도는 성공한다고 하는데, 분만 케이지는 자돈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것 같다.

자돈의 하리때문에 골치를 썩

는 농장은 분만 케이지를 사용하면 많은 효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무안농축장의 분만사에서만은 남성도 여성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된다고 한다. 섬세한 여성이 분만돈의 관리를 하는데는 남성보다는 우수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분만사 책임자를 여성으로 보임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농장의 또 다른 특색은 어떤 분만돈이라도 임신 대기사에서 분만돈사로 이동할 때는 약욕실을 거쳐야만 분만사로 들어갈 수 있다.

약욕실에 들어가면 일단 수세를 하게 되어 있으며 수세가 끝난 모돈은 사방에서 약물이 분사되는 통로를 10여 미터 정도 통과해야만 분만사로 들어갈 자격이 있다. 이런 철저한

임신대기사에서 분만돈사로

이동할 때는 약욕실을 거쳐야만 통과

이동 체계가 확립되어 있으므로 질병에 대한 취약성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홍막폐염 백신 최우선으로 실시

요즈음 각 농장에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홍막폐염으로부터 돼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일산업의 무안농축장에서는 3 차례에 걸쳐 백신을 실시한

다.

1 차는 40~45일령에 실시하고, 2 차는 60~65일령에 실시하며, 3 차는 100~115일령에 실시한다. 홍막폐염 백신을 실시할 때는 AR, 파스튜레라, 헤모피루스등에 관한 백신도 함께하고 있다.

돈군의 청정화를 위해서는 철저한 백신으로 개체관리를 하고 소독을 생활화하여 환경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하기 때문이다.

구일산업의 앞으로의 목표는 좀 더 좋은 돼지를 개량해서 우리나라 중돈개량에 이바지하고자 함과 아울러 이 지역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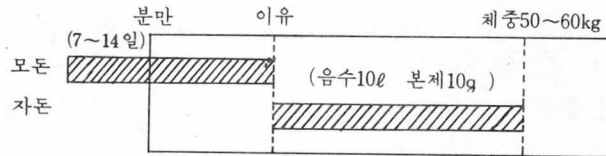
머지 않은 장래에 무안반도가 간척지의 쓸모 없는 땅에서 꿈과 희망이 넘치는 땅으로 변모될 것은 자명한 사실로 여겨진다. *

양돈장의 고질적인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메토믹스-수용산

- 위 축 성 비염
- 홍 막 폐염
- 유 행 성 폐염
- 기 관 지 폐염
- 파스튜렐라성 폐염
- 설사
- 장 독혈증
- 무유증 증후군

= 예방 프로그램 =



= 치료 시 =

(음수10ℓ 당)

구 분	체중(kg)	사용량(g)	구 분	체중(kg)	사용량(g)
포유자돈	5~10	20~35	비 육 돈	25~100	20~30
이유자돈	10~25	10~20	중돈·수유돈	120이상	10~20

*예방 프로그램 적용시 증체율 10.3% 사료효율 3.7% 개선되었습니다.



(株) 中 央 케 미 칼 (T590-8361~4)